

코로나19 직격탄

지역 연극계 '연극의 해' 도약의 꿈 무너지나

한국연극협 '연극의 해' 재검토 요청 예산 21억, 피해연극인에 지원 촉구 광주연극계 예산·본선 6·8월로 연기 공연 줄줄이 취소·배우는 강제 휴가

올해를 '2020 연극의 해'로 지정하고 도약을 꿈꾸던 연극계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며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연극의 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매년 특정 장르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마련한 '예술의 해' 사업의 첫 번째가 1991년 '연극·영화의 해'였다. 이어 춤의 해, 책의 해, 국악의 해, 미술의 해, 문학의 해가 시행됐다. '연극의 해'는 29년 만에 단독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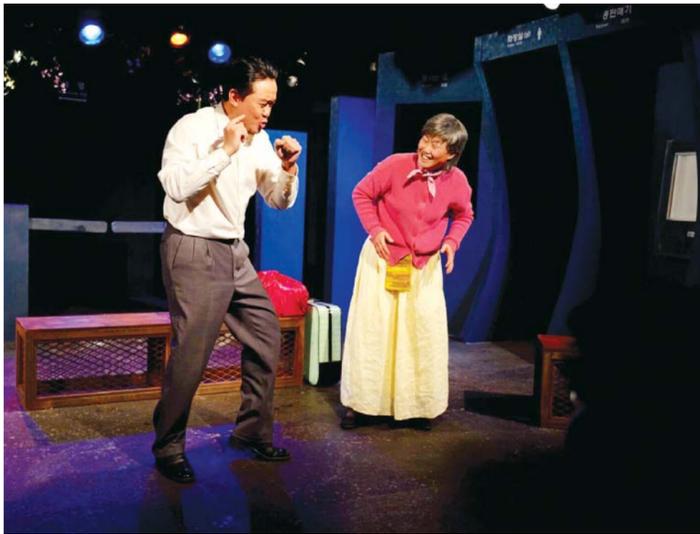
하지만 최근 한국연극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연극의 해'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연극인 지원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올해 연극의 해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급변해 전국 각지에서 연극을 염으로 하고 있는 연극인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더해 온다"며 "배우·스태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극의 해 예산을 사용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연극단체 피해사태를 모집중이며 지난 19일까지 전국 40개 단체가 공연 취소나 연기, 관객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오대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연극의 해가 지정돼 붙임되고 기뻐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극의 해 행사를 만들기보다 관련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연극인을 골고루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연극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연극계도 연극계가 미뤄지는 등 타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를 '2020 연극의 해'로 정했지만 연극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푸른연극마울의 '옥주'.

받고 있다.

광주연극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계획된 광주연극제 예산이 6월로 미뤄졌으며 6월에 열릴 예정이던 본선도 8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광주연극제에 참가할 극단이 3팀으로 결정됐고, 1-2월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예산에 오르기로 했지만 전면중단된 상태다.

광주연극협회 원광연 회장은 "3월 열리는 광주연극제를 시작으로 광주의 모든 연극이 활성화되는데 코로나 19로 올스톱 됐다"며 "광주연극제는 상반기 가장 큰 행사로 배우, 스태프 등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공모사업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위해 마련된 공모·육성사업에 지원했던 극단들은 심사, 결과발표 등이 미뤄지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극협회는 또 '2020 연극의 해'와 관련해 한국연극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연극협회와 연합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 형식의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광주시 측에 '2020 연극의 해' 관련 행사 진행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한국연극협회가 연극의 해를 연기하는 등 재검토하자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연극의 해를 진행한다면 작은 행사라도 준비할 생각이지만 코로나 19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 연극의 해'는 지난해 문체부가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인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하고 침체된 연극의 부흥을 위해 연극인들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 중단

중심사·대흥사 등 광주·전남 23곳 전국 137곳 3월20일까지 운영중지

광주 중심사, 무각사,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등 광주·전남 23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오는 3월 20일까지 중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템플스테이 운영 전체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찰 뿐 아니라 전국 137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도 일시 중지돼 당분간 산사의 템플스테이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 중지 기간의 단축 및 연장, 추가 지침은 향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4일자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며 "문화사업단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고자 템플스테이 운영 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남 달마산 미륵사

앞서 문화사업단은 21일 내부 공지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템플스테이 사찰 총 18개소의 운영을 3월 15일까지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정부의 위기경보가 격상되자 전국 137개 사찰로 템플스테이 운영 중지 범위를 넓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코로나19와 관련 긴급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방역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4월 예정 국제도서전 연기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전 5월4일~7일·이란 테헤란도서전 6월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도서전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4월 2일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5월 4일~7일로, 4월 14일~24일 개최될 계획이던 이란 테헤란국제도서전은 6월로 각각 연기됐다.

이탈리아와 이란은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나라에 속한다.

앞서 지난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대만 타이베이국제도서전도 5월로 연기됐다.

해외 국제도서전이 잇따라 연기됨에 따라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달성과 BTS의 인기

등에 힘입어 '출판 한류' 마케팅에 나서려던 국내 출판업체들의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다른 국가에서 계획된 도서전도 해당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나 검역 강화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들의 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판 관계자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아직 개최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참가 예정 업체의 취소 문의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공모' 우수상

무지개다리사업 9년 연속 선정...국비 1억 지원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주체들간의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종과 성별, 나이, 계층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은 '채널우리누리'.

'채널우리누리'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민

방송이 공동 기획·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작하고 진행하며 '모든 날 모든 순간', '스페이스 타임', '나의 한국인권유람기' 등의 코너를 통해 이주민들이 만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룬다.

광주시민방송 주파수인 88.9Mhz를 통해 광주 북구 전지역, 백운동, 광천동 일원에서 청취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서 '광주FM'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은 소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다 이주민 중심 라디오 방송 운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를 높인 우수사례"라고 평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광주문화재단을 포함 11개 사례가 선정됐다.

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우리누리'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해왔으며 2019년 문화다양성 증진단 운영을 비롯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광주난민영화제,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이 기획·제작에 참여한 '채널우리누리'가 문화다양성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채널우리누리 체험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Advertisement for 'Kukje Boreunggi' (국제보청기) hearing aids, featuring logos for Beltone, CES, and BIG Innovation Awar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Dae San Primo Namnyeo Gabal'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hair extensions, listing awards, contact numbers, and branch locations.